

# 한국타이어, 세계 타이어 5위 부상

헝가리 500만개 공장 완공되면 7000만개 달해 ... 2차 1000만개도 건설

한국타이어가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헝가리에 새로운 타이어공장을 건설한다.

한국타이어(대표 조충환)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68km 떨어진 두나우이바로쉬를 유럽공장 건설부지로 최종 결정하고 역삼동 본사에서 투자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월31일 발표했다.

조인식에는 한국타이어 조충환 사장, 헝가리 정부 Janos Koka 경제교통부 장관, Abel Garamhegyi 경제교통부 차관, Istvan Torzsa 한국 주재 헝가리 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 조인식 후 한국산업은행과 헝가리 공장 건설과 관련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한국타이어 헝가리 공장은 두나우이바로쉬의 16만평 부지에 들어서는데, 총 5억유로를 투자해 승용차용 고성능 타이어와 경트럭용 타이어를 연간 1000만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총 고용인원은 1500명 선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하반기에 생산을 개시해 2008년 연산 500만개 라인을 1단계로 완공하고 2010년 초 2단계로 연산 1000만개 라인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대전 및 금산 공장과 중국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서 연간 5800만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부유럽 공장을 건설하면 한국, 중국, 헝가리를 연결하는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헝가리 공장 1단계가 완공되는 2008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7000만개로 늘어 미쉐린, 브리지스톤, 굿이어 등 타이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서게 된다.

한국타이어의 유럽지역 수출은 2004년 3억1700만달러(FOB 기준)로 전체 수출물량의 36.8%를 차지했으며 2005년 유럽 수출은 4억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1>